

2024년 대전MBC 신입사원 공개채용

- 뉴스 리딩 원고(아나운서) -

※ 제시된 2개 원고 중 하나의 원고를 택하여 '뉴스 원고 리딩' 동영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세종시의회가 국제정원도시박람회 등
최민호 세종시장의 역점 사업 예산을 삭감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의회의 책무라고 밝힌
이현정 예결특위 위원장을 향해 “예결위원들의 동의도 없이
예결위 입장이라며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과 언론을 우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최민호 세종시장은 “시의회가 국고보조사업의 편성 과정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며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공개토론을 제안했습니다.

■ 2

우주항공 정책을 총괄하는 우주항공청이
5급 이하 임기제공무원 65명 채용에 나선 가운데
대전 등 전국 3개 권역에서 채용설명회가 잇따라 개최됩니다.

이번 설명회는 31개 다양한 직위에 대한 지원 예정자들의 이해를 돕는 자리로,
오는 9일 우주청이 위치한 사천을 시작으로
오는 13일 서울, 오는 14일에는 대전 카이스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특히, 부문별 프로그램장 등이 직접 참여해
우주수송과 인공위성, 우주탐사 등 주요 업무 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어서
당초 300명 규모를 목표로 출범했지만 계속되고 있는 인력 부족과
채용 지연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